

여행은 '달라진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것

행복한 책 읽기 우종영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겉는 나무 刊)

잠깐, 저기까지만

마스다 미리 지음

일본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작품은 따뜻하다. '내 인생에 대 역전은 없지만 내일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장 시리즈나 작품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에서 들려주는 에피소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에세이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까'를 통해 따뜻한 감성을 전한 마스다 미리가 이번에는 여행 에세이 '잠깐, 저기까지만'을 내놓았다. 어디론가 떠남을 생각하는 휴가철에 읽기 안성맞춤인 책이다.

책 제목은 여행은 좋지만 언제 모르게 첫 발을 내디디기 어렵고 낯선 곳이 두려운 이에게 '잠깐 저기까지만'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떠나보자는 권유를 담고 있다.



그녀의 발길이 닿는 곳은 아주 가까운 도쿄일 때도 있고, 작가의 고향 오사카 근처인 교토나 나라일 때도 있다. 또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이어진다. 그녀 여행의 동반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엄마다. 또 나홀로 여행도 있다. 가나자와로 떠난 엄마와의 여행에서는 엄마의 나이들에 울컥해지고, 가고시마와 스웨덴으로 떠난 여자친구들과의 여행에서는 추억을 만들어간다. 여행은 내내 유쾌하고 그 유쾌함 속에 따뜻함이 함께한다.

나라 공원으로 홀로 떠난 여행에서는 수학여행 온 중학생 무리에서 '혼자 있는 아



어제까지 몰랐던 세계를
오늘의 나는 알고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은
기분이 얼마나 신기한지 ...

이'를 발견하고 여행에 대해 생각한다. 사슴도, 나라 공원도, 토산품 가게도 상관 없는 아이, 이 일정을 무난히 넘기는 것만이

전부일 아이에게 마스다 미리는 이렇게 전한다. "빨리 '어른'이라는 장소로 도망쳐 오렴. 어른이 되면 좀 자유롭단다. 혼자 여행을 떠나도 괜찮아."라고.

"어제까지 몰랐던 세계를 오늘의 나는 알고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은 이불 속에 누우면 언제나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책을 끝내며 쓴 글귀다. 그럴 듯하다. 여행은 달라진 예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한편 마스다 미리의 책을 꾸준게 내고 있는 이봄에서는 신작 만화 '내 누나'도 함께 소개한다. 한 집에 살게 된 누나와 남동생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미소가 지어진다. <이봄·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TV 속 세트들 짓다=18년차 세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일하면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생생하면서도 세밀하게 담아냈다. 미술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불리기도 하는 세트 디자이너란 직업의 속성, 세트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 연출가의 미술 의뢰로 시작해서 협의를 거쳐 도면을 그리고 확정된 설계안을 따라 세트를 설치하고, 소품을 배열하기까지의 실제 작업 프로세스 등이 이어진다. <두성북스·2만6000원>



중독성이 강하며 무섭고 소름끼칠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유쾌할 때도 있다. <문학과지성·8000원>

▲시대를 이끈 창종자=위기와 난세의 시대, 이 땅에 종교를 만든 사람들, 그 생생한 민족종교의 흐름을 찾아나선 책이 나왔다. 한국 창종자들에 대해 쓴 이 책은 종교적 관점이나 해석보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각과 실천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관점에서 썼다. 책에 나타난 창종자들은 구한말의 혼란기를 겪으며 무엇인가 찾으려고, 민중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 <참글세상·1만3800원>



다시 쓰는 일본의 지식문화사. 모든 지식과 학문이 총결집되는 '사전'을 중심으로 고대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지식문화사를 재구성했다. 일본 역사학계에서 일찍이 문화사, 사상사 영역을 개척한 저자 오스미 가스오의 학문적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 저작이다. 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지식의 갈무리해온 동아시아의 지식사 또는 문화사의 한 풍경이 그려진다. <세계절·1만7800원>

▲당신이 어두운 세수를 할 때=풍성하고 섬세한 시어로 평당과 독자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인 김근의 세번째 시집. 시집의 제목은 수록작 '밝은'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 제목과는 달리 어두운 분위기가 흐르는 작품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기묘한 이미지들을 포진시켜놓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가 조장하는 공포는

▲당신이 어두운 세수를 할 때=풍성하고 섬세한 시어로 평당과 독자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인 김근의 세번째 시집. 시집의 제목은 수록작 '밝은'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 제목과는 달리 어두운 분위기가 흐르는 작품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기묘한 이미지들을 포진시켜놓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가 조장하는 공포는

▲당신이 어두운 세수를 할 때=풍성하고 섬세한 시어로 평당과 독자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인 김근의 세번째 시집. 시집의 제목은 수록작 '밝은'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 제목과는 달리 어두운 분위기가 흐르는 작품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기묘한 이미지들을 포진시켜놓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가 조장하는 공포는

어린이 책

▲어린이 인문학 여행 2=어린이의 눈높이로 여행하듯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어린이 인문학 입문서. 2권에서는 어린이들을 심리학과 음악, 문학과 환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어린이들이 세상을 보는 지혜와 바른 품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자유롭고 풍부한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 세상을 읽는 인문학의 세계를 담은 3권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생각하는책상·1만2000원>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꿈꾸며, 낮은 자세로 낮은 곳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가톨릭교회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편, 잘못된 일 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하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다. <보리·각 권 1만3000원>

▲거북 선생님 자연과학교실 1.2=동물들이 똥을 누고, 똥이 다시 흩어 되어 생태계가 돌고 돈다는 이야기부터 작은 돌멩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까지 재미있는 동화 형식으로 담겨 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거북 선생님 캐릭터를 만들어 내고, 장마다 '똑똑! 자연과학교실'을 넣어 이야기 속에 담지 못한 정보들을 담았다. <보리·각 권 1만3000원>

▲천방지축 우주 영웅=우주 미아가 되어 동등 떠다니던 책 프로톤이 우주로 보내진 마지막 집팬지 오메가 점프를 만나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어린이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

천방지축을 찾는 모험을 펼친다. 무시무시한 덩치괴물과의 한판, 고물 로봇 에피와의 만남. 흥미진진하고 못 말리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자주보라·9000원>

▲난 학교가 좋아!=학교와 배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그림책. 엄마, 아빠와 "안녕!" 친구들과 "안녕!" 하며 등굣길에 인사하고, 척척박사 선생님께서 재밌는 것들을 배우고, 오늘은 뭐가 나오까 기대하며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교실 창밖의 하늘을 감상하는 등 학교는 또 하나의 친근한 생활공간으로 그려진다. <톡·1만2000원>

나무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녹는다. 나무를 말할 때마다 저자의 순수한 성품이 묻어나 마음이 파스해진다. 마치 숲속 나무친구들을 소개하듯 추억담을 곁들여 수식이 가 딸린 이름표를 내민다.

모과나무의 오묘한 특징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두 줄기로 꼬여가며 자라는 등나무에게 '지나간 인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인연, 앞으로 만들어갈 인연'이라고 후한 점수를 준다. 또한 라일락에 대해서 말할 때는 첫사랑을 떠올리는 순박함에 반하고 만다.

문득 명자나무 열매로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 먹고 싶은 충동도 느낀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도록 그리움의 간격까지 섬세하게 묘사한 대목에 박수를 보낸다.

책을 읽고 있으면 창밖에 있는 나무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어렸을 적 뛰어 놀았던 당산나무부터 마당가에 휘청대던 대추나무를 비롯한 탐스런 유실수들, 그리고 수피가 거북등이 된 뒷산의 소나무 등 험터에 자리 잡은 정자나무까지 휴식처가 되어 우리를 부른다.

나무도 꽃처럼 전설이 구전되어오고 있다. 봄에 피는 하얀 이팝나무 꽃을 보면 가련한 모자의 애절한 전설이 떠올라 다시금 살펴보게 된다. 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땃자나무의 슬픈 전설, 스님이 꽃아둔 지팡이에서 잎이 돌아났다는 은행나무 이야기, 선비나무가 된 회화나무 등 전설 외에도 꽃피는 나무의 꽃말까지 알면 알수록 신비스러우면서 재미있다.

바야흐로 여름이다. 한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는 그리운 배롱나무 꽃이 환호성을 터트리고 있다. 물가도 좋지만 나무가 사는 숲 그늘을 찾아가 보라. 가만히 있어도 있어도 저절로 삶을 사랑하게 된다.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우종영 박사의 진실도 나무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김수환 추기경님이 추천한 책이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신춘문에 동화 당선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업
- ▶ 도로표지판
- ▶ 웬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